

특별메세지 - 돌봄Ⅲ. '이해'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1.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은 '사랑'이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랑으로 마무리 되어져야 한다. 성경은 '사랑이 없는 일은 아무리 좋아보이는 일이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3:1-3]

- 1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썰과리가 될 뿐입니다.
-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3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능력도, 심지어 남을 돕고자 하는 구제하는 마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1-3절을 갖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모습의 그리스도인 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한다. 헛수고라는 말이다.

신앙은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환경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속성을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3:4-7]

- 4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 5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 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추상적이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아주 명확하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 '타자적 관점'이다. 4-6절에 나온 사랑의 속성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인내, 친절, 시기,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 등) 모두가 내 이웃을 향한 마음의 태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사랑의 속성이 예수님 기적의 원동력이 된다. 예수님의 능력은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그것은 어떤 사랑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은 '모든 것'에 있다. 이것이 바로 '존재적 사랑'이다.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맞춘 사랑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덮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는 말이다.

2. 조건과 무조건

[요한복음 8:3-5]

- 3 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 4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 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 간음한 여인의 상황과 처지

간음한 여인은 현장범이었다(4절). 간음은 지금도 용서받지 못할 가장 심각한 범죄중의 하나이다. 가정을 파괴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런 여자를 현장범으로 잡아왔다. 모세의 율법에 능한 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법'으로 여인을 돌로 쳐서 심판하려 했다. 그리고 여인의 상황으로 예수님께 질문한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옹호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시험은 바리새파 뿐만 아니라, 오늘날 타락한 인류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다.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인류의 범죄에 대해 어떤 사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평등한 사랑인가?' 등의 질문이다. 만약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인을 용서한다면, 여인으로 고통받았던 간음의 피해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상황이다. 불공평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다.

[요한복음 8:7]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다. 법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향해 예수님은 질문하셨다. '너희가 말하는 법에 너희는 완전하고 완벽한가?'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신 엄청난 대답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죄와 죄인'된 인간을 보게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 조건없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사랑의 핵심인 것이다.

율법은 인간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인 인간의 죄의 속성은, 인간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어 살게하는 육의 존재로 만든 것이다. 육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존재적 인간에서 행위적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행위의 기준을 만들었고 그것에 자신을 비추었다. 기준에 가까이 도달하면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의인이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조건적'이다. 조건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선악과의 저주란, 하나님이 없는 완벽한 존재를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법을 만든다. 이것은 인간이 합리적인,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을 향한 외형적 합의를 말한다. 그리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어야 법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본성은 '공평'이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2) 존재적 사랑안에 있는 공평함의 비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안에 있는 본질이다. 그 본질이 하나님이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존재의 정의는, 존재물이 있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이며 뜻이다. 그래서 어떤 생명든 의미와 이유가 없는 존재는 없다.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하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존재의 이유 위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모든 우주만물이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존재 위에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3) 사랑은 만남이다.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존재적인 사랑은 '만남'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남'의 존재로 지음 받았다. 만남은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결혼을 하면 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 자녀가 태어나면 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라는 존재 가치를 배우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남'은 사랑을 말한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사랑의 본성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바로 '만남'이다. 사랑하는 연인의 만남을 통해 조건없이 내 것을 다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배운다. 부모가 될 때 나보다, 내 존재 가치보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사랑의 속성을 알게된다. 놀라운 순간이다. 경이로운 순간이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인간이 말하는 '공평함과 불평등', '차별없는 기회', '나만 고통받는 것 같은 기분'을 넘어선다. 존재적인 만남을 통해 인간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배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 인지 알게되는 것이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 없어진다. 나를 향한 조건없는 절대적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법에 관점에서 보면 둘로 쳐죽임을 당해야 할 나를 위해, 아무런 죄가없는 그 분이 아무 조건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공평하다.

3. 조건 없는 이해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이해'로 나타났다. 이해는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는 존재적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율법이 아닌 조건없는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간음한 여인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의 존재, 즉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인으로 먼저 보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은 언제나 '존재' 그대로를 보시는 이해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8:10-11]

10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의 돌봄은 여인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여인에게 부탁하신다. "바라시는 것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존재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돌보아야 한다. 행위가 아니다. 존재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고통 당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야 한다.

사랑 안에서 율법은 완성된다. 이제 판단과 조건이 아닌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사랑으로 먼저 보듬는, 존재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

- 1) 실천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2)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 3)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